

“교통환경 · 정주여건 · 체육대회 인프라 등 뛰어나”

숨은 인재 ‘두각’

익산시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전 유치는 숨은 인재가 있었다. 그 주인공은 전 육 체육진흥계장. 전 계장은 최적의 교통환경, 뛰어난 정주여건 등을 앞세워 지난 3일 경기도 이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전 훈련원에서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면담을 하는 데 숨은 공로자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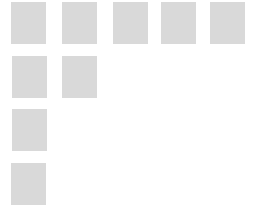
장과 여가활동 신장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큰 공을 세웠다. 게다가 전 계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익산으로 이전하면 인구 증대는 물론 연간 200억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다양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치르며 갖춰놓은 기반시설과 편리한 교통망, 정주여건 등의 장점을 살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며, 또한 이번 유치전에서 익산시가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전국체전 등을 치르며 기존에 구축된 경기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해 체육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전 육 체육진흥계장, 익산시-장애인체육회장간 면담서 체육회 지역 유치 긍정 반응 이끌어내는데 윤희유 역할 공직생활 하면서 각종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큰 공 세워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역주민들간의 협업으로 지역 농특산물 공급 등 지역경제 발전 시너지 효과 낼 방침”

또한 “익산역에서 KTX로 서울까지 1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환경과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1만여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편리한 정주여건 등을 내세워 대한장애인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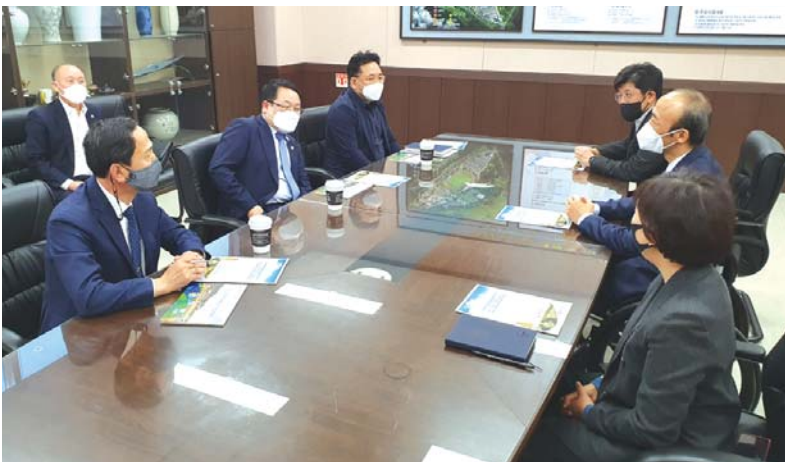
회를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 계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본원과 훈련원, 32개 경기단체까지 3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면 가족까지 약 1,000여명의 인구 증대 효과가 예상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익산시를 방문하거나 각종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을 통해 연간 2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역주민간 협업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특산물 공급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익산시는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한 강점을 바탕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이전 유치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체육진흥과를 중심으로 관련 단체와 이천훈련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제8회 전국 품바 명인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Paper Road!

전주페이퍼가 종이의 세계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주페이퍼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 종이시장의 중심이 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종합제지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

